

# 조선시대 배불정책과 호국불교 사례연구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 I. 서론

1392년 역성역명을 통해 태조 이성계는 고려왕조를 붕괴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의 건국은 왕씨의 고려에서 이씨의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정치적 사건이지만 지방호족 세력이 무너지고 신홍사대부 세력이 권력을 주도하는 사회의 주도권 변화가 일어났다. 더불어서 불교를 국교로 하던 나라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로 변모하는 매우 극단적인 종교적 변화도 발생하였다.

정도전 등을 비롯한 신홍사대부 세력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자신들이 생각하였던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세력 교체는 물론이고 과감한 사회종교적 변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왕권의 약화를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 등의 왕실 중심 세력과 치열한 각축을 벌였으며 그 결과 왕권이 강화되는 유교사회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고려시대에 다수의 왕사와 국사를 배출하면서 국교로 숭앙받던 불교는 하루아침에 척불(斥佛)의 대상이 되었고 각종 탄압과 수탈을 당하면서 산중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신홍사대부가 중심이 된 조정대신들은 지속적으로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제시했고, 다수의 정책들은 실제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억불숭유정책이 지속된 배경에는 지방호족 세력의 약화, 토지 및 군사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 정치적 목적과 신홍사대부의 사회적 위상 정립 및 지배권 확립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조선시대의 불교계는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불교계의 사찰과 스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호법(護法)을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호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호국불교로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지지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조선시대 불교는 호법을 위한 호국불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호국불교가 어떤 양태로 나타났으며, 조선시대에는 이 중에 어떤 호국불교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호국불교를 수용형, 국교형, 전제형, 생존형, 위민형 등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의 호국불교형태가 조선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 II. 호국불교의 이론적 관점

### 1. 호국불교의 개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에서 호국불교(護國佛敎)는 “불교를 굳게 믿음으로써 국가와 왕실의 번영을 생각하는 현세 불교적 신앙”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sup> 네이버(Naver) 지식백과에서는 “불교신앙으로 국가를 보전하고, 보호한다는 불교이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설명은 호국불교를 국가불교, 왕실불교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 속에는 호국불교를 긍정적 시각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국불교의 관점은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등 대립되고 있다. 긍정적 관점은 불교인도 특정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 관점은 불교인들이 전장에 참여하여 살생을 벌이고 권력과 야합하는 등의 행위는 불교의 전통적 계율을 어기는 것이며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1)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

있다.

호국불교를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면 “국가를 보호하는 불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國家)’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다. 불교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국가(國家)는 전통적으로 불국토, 온 나라, 세간, 중생세계 등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으로 이는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라는 개념은 불교 경전에서 사용하는 국가(國家)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묘법연화경』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화광여래라는 수기를 받으며 “그 세계의 이름은 은 이구(離垢)”라는 구절이 있다.<sup>2)</sup> 이 단어를 한문 원전에서는 국명(國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는 부처님의 나라, 즉 ‘불국토(佛國土)’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개념이 불교와 사회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호국불교는 “부처님 나라인 불국토를 보호하는 가르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준호는 『인왕경』, 『금강명경』, 『법화경』 등을 호국삼부경으로 규정하고 이들 경전은 “국가의 위난과 재액을 소멸하여 국가를 태평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sup>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에서 불교의 소멸은 정치권력과의 거리를 두는 정교분리와 정치권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정교일치의 권력투쟁의 패배에 기인하는 면이 많다. 초기불교에서 석존(釋尊)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가르침을 제시했고, 왕과 귀족들의 귀의에 대해서도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 그들의 정치권력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불교에 귀의한 왕이나 귀족세력들은 석존으로부터 국가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자 하였으며, 사찰을 건립하고 수행자들을 후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존 재세시의 인도는 16개국에 각축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석존과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불교를 받아들이는 왕이나 정치세력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세속적인 국가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를 수호하는 불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력들이 불교를 호국으로 활용하면서 불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불교는 이러한 정치세력에 대응하여 신앙과 수행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게 되면서 호국불교가 호법

2) 이운허 2013, 72.

3) 조준호 2012, 20.

불교의 특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태는 한국에서 호국불교의 개념이 학술적 담론의 대상이 된 것은 일본불교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벌어진 신불분리(神佛分離)와 폐불훼석(廢佛毀釋)으로 위기에 직면한 일본불교계가 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왕제와 군국주의 강화에 적극 협력하는 국가불교의 길을 걸으면서 호국불교의 인식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sup>4)</sup> 여기서 호국불교가 국가불교, 황도불교, 진호불교, 전시불교 등의 용어들이 생겨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종교로서의 위상 정립, 독립운동의 참여 등과 같은 관점이 반영된 호국불교적 관점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호국불교 양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 2. 호국불교에 대한 제 관점

### 1) 호국불교의 긍정적 관점

긍정적 관점의 호국불교는 국가종교로서 위상을 갖춘 호국불교, 민중종교로 기능하는 호국불교 등의 두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종교로서의 호국불교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불교, 왕실의 보호를 받는 불교, 귀족의 후원을 받는 불교 등의 측면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명실상부하게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은 기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로 볼 수 있다. 국교가 되면서 사찰들은 왕실이나 지방 호족 등의 지원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리고 스님들은 왕사와 국사 등과 같은 직책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 사찰은 단순한 수행공간이 아니라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인도와 티베트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한 바이다. 불교가 국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절대적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불교 또한 절대적 종교로서 국민들 사이에 수용된 것이다. 인도에서도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시대의 아쇼카 대왕, 쿠산왕조의 카시니카 왕, 굽타 왕조의 사무드라 굽타 등의 시기에 불교가 국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었다.<sup>5)</sup> 그러나 왕조가 쇠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 불교는 탄압에 직면하고

4) 김용태 2012, 48-49.

5) 사사키 교고 등 1985, 64-147.

위축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을 보였다.

티베트에서 불교는 640년 토번왕국을 건설한 송첸감포(581~649)왕 시대에 국교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송첸감포 왕은 티베트문자와 문법을 정비하면서 인도에서 불교를 들여왔다. 그리고 당나라의 문성(文成)공주가 불상을 갖고 들어와 불교가 전해졌다.<sup>6)</sup> 이 때 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의 10선계(+善戒)를 본뜬 법률을 제정하고 소초사(小昭寺)와 대초사(大昭寺)를 건립하여 불교국가의 기초를 세웠다.<sup>7)</sup>

베트남에서는 리(李, Ly, 1009~1225)왕조를 건국한 리꽁우언은 절에서 성장하고 룝또사(Lus To, 六祖寺)에 유학한 경험으로 불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니타 루지파의 12대조인 반 하인(Van Hanh, 萬行)의 도움을 받아서 리왕조를 건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태조 리꽁우언은 1010년 전국의 사찰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수리하고, 수도와 자신의 출생지에 10여개의 사찰을 건립했다. 1028년 즉위한 타이 퉁(Thai Tong, 太宗, 1028~1054)은 즉위 5년 만에 전국에 1000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였다.<sup>8)</sup> 이와 같이 인도, 티베트, 베트남 등의 국사에서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고, 국가종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는 왕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불교가 왕의 종교, 왕실의 종교적 특성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전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수직적 전파과정에서 국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둘째, 불교가 국교로 정해지면 국가에서는 불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고 스님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스님들이 수행처로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이 불교가 국시이며, 국교라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 때 세워지는 사찰의 이름에는 받든다는 봉(奉), 나라를 상징하는 국(國), 부흥한다는 흥(興) 등의 글자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불교가 국교로 정해지고 나면 민중들 사이로 불교정신이 확산되고, 오랜 시일이 걸려서 신행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불자들이 불교라는 종교조직의 이상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경향들이 적게 나타나는 요인이 된다. 이 단계에서 불교는 주류 종교로 사회에 확산되고 민중

6) 이시하마 유미코 지음, 김한웅 옮김 2007, 30.

7) 다나카 기미야키 지음, 유기천 옮김 2010, 49.

8) 유인선 2002, 118.

들이 스스로 불교에 의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는 승려가 승직(僧職)뿐만 아니라 관직(官職)에도 진출하며, 승직이 곧 관직으로 정착된다. 그리고 왕사(王師)와 국사(國師) 등이 임명되면서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확대된다.

넷째, 국교화 되는 과정에서 불교는 자연적으로 호국불교의 이상을 갖게 되고 이를 실행활동에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불교계도 국가와 왕의 은혜와 업적에 봉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다섯째, 호국불교의 위상을 갖게 된 불교는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 죽거나 다른 사람이나 계층으로 권력이 넘어갈 경우 엄청난 탄압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삼무일종의 법난<sup>9)</sup>이나 여타 국가에서의 불교 탄압은 주로 왕의 비호로 불교계가 번성한 다음에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가 정치권력과 밀접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호국불교의 이념을 실천하는 대상이 국왕이 아니라 국민 혹은 탄압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할 때 민중불교로서의 호국불교가 나타난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민중불교는 국가의 권위, 왕의 권위에 대항함으로써 민중을 대신하여 새로운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사은(四恩)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은(四恩)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송나라의 도성(道誠)의 『석씨요람(釋氏要覽)』이 부모의 은혜, 사장의(선생과 연장자) 은혜, 국왕의 은혜, 시주의 은혜를 기본으로 들었다. 당의 반야 역 『심지관경(心地觀經)』에서는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국왕의 은혜, 삼보의 은혜를 들고, 일체의 중생은 모두 사은(四恩)을 진 존재라고 주장, 사은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중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호국불교는 결국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고, 민중을 기아나 질병,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9) 삼무일종의 법난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불교박해가 이루어진 네 번의 사례를 말한다. ① 북위의 태무제(太武帝), ② 북주의 무제(武帝), ③ 당의 무종(武宗), ④ 후주의 세종(世宗)에 의한 폐불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제1회째의 도교황제라고도 할 수 있는 태무제에 의한 <위무(魏武)의 법난>은 446년부터 7년간에 걸쳐서 불교탄압이 이었고, 제2회째의 <주무(周武)의 법난>은 574년과 577년의 2회에 걸쳐 일어났다. 이 때는 문제 백관을 모아서 유·불·도 3교의 우열을 논하게 한 후, 불교와 도교를 폐지했다. 845년에 행하여진 제3회째는 연호에 의해 <회창(會昌)의 법난>이라고 하는데, 도교도의 회복에 의해서 불교와 서방에서 전래된 경교·현교·마니교의 3이교(夷教)도 금압되었다. 955년에 행하여진 제4회째의 <후주(後周)의 법난>은 전3회와는 달리 국가의 재정적인 궁핍이 주된 동기였다.

한 활동이 호국불교가 되려면 결국 민중이 주인이 되고,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주국가가 성립되었을 때 민중불교가 호국불교로서의 이념을 수용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민중불교는 호국불교가 아니라 현실을 타개하거나 개혁하려는 형태로 나타나서 기존의 권력과 질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2) 호국불교의 부정적 관점

호국불교의 부정적 관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계행에 어긋나는 호국불교라는 관점이다. 호국불교는 ‘호국’과 ‘불교’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상호모순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호국(護國)’은 세속적이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 불교는 출세간적이며 사해동포(四海同胞)를 아우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sup>10)</sup>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 발발시 호국불교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아가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싸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승도(僧徒)가 금계(禁戒)인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를 어긴다는 것은 불교수행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계율의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계율이 상황논리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계율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나아가 불교 자체도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sup>11)</sup>

호국불교의 사상적 근거는 주로 『인왕호국반야비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수호국계주타라니경(守護國界主陀羅尼經)』 등에서 찾고 있다. 호국불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승도의 살생을 어느 곳에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경전들은 주로 정법치국(正法治國)을 전제로 한 호국불교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sup>12)</sup>

불법(佛法)에 의지하여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국왕의 활동을 호국호불의 치국이념을 강조한다. 반면에 조선은 승유억불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에 기반을 둔 치국(治國)은 사회구조상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치국의 호국사상을 임진왜란기 의승군에 적용하여 불교 교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율적으

10) 김종만 2000, 196.

11) 김근호 2003, 215.

12) 김근호 2003, 215.

로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기에 서산대사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인 선조도 의승군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과 본분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만약 나라 안에서 부처님 법을 배운 무리를 병사로 만들어 검술을 배우고 활쏘기를 배워서 번고가 날 장소에서 종사하게 한다면 끊는 가마솥이나 화룻불 속이라 할지라도 회피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몸을 보전하려하고 처자를 보호하려 하는 병사에 비하여 용기와 강하기가 백배는 될 것이다. 그러하니 정말로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죽히 믿고 쓸 수 있으나, 이 법을 한번 실행하면 관음보살이 어느 곳에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sup>13)</sup>

이 인용문은 1595년 사명당 유정의 상소문에 대한 선조의 답변이다. 유정은 상소문에서 승려들에게 산성수호를 위해 둔전을 경작하고 병법을 익히게 하자고 왕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선조가 오히려 승려의 참전으로 인한 불교의 종교적 이상에 대한 훼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김순석(2012)은 의승군의 호국불교 활동에 대하여 “종교의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실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판단하였다.<sup>15)</sup> 불교교단의 종교적 가치관과 사회적 실존 사이의 선택은 참전하는 의승군의 개인적 의지와 승가의 대중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승군은 국가에 배속된 군대이기 때문에 승군의 일원이 된 승려는 이미 사회적 실존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의승군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의승군은 스스로 선택할 길이기 때문에 개인적 수행보다는 사회적 구제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를 던진 수행자들이었다. 따라서 계행적 기준만으로 의승군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호국불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 중에 하나는 권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3) 「乙未上訴言事」, 『松雲大師奮忠紓難錄』(H. 8, 98c): 如使海內學佛之徒, 盡化爲兵, 學劍學射, 而從事於待變之場, 則鑊湯爐炭, 無所回避. 其視全軀保妻子之兵, 勇強百倍. 誠爲緩急, 足恃之用, 而第未知, 此法一行, 觀音菩薩, 在甚麼處.

14) 조기룡 2016, 21-46.

15) 김순석 2012, 81.



김종만(2000)은 호국불교에 대해 “왕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복전쟁을 합리화하고 계급구조를 심화시키는 배후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16)</sup>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와 걸사표를 들고 있다.

호국불교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세계성을 바탕으로 계층과 세대, 시간과 공간을 한정짓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호국불교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만 분석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호국불교는 불교권 국가에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현실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가, 현실 정치 위에 군림하는가, 그리고 현실 정치를 떠나 있는가 등으로 나타난다.

정치인들은 지지기반 구축과 정치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종교단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통치 세력의 주류 종교와 민중의 종교적 기반이 일치할 때 나타난다. 반면에 통치세력과 종교세력 사이에 갭이 많고 상호 불신이 남아 있을 때는 정치가 종교를 끌어들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호국을 이유로 정치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호국불교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불교가 특정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의 한 하위 영역으로서 전시(戰時)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보국안민의 자세로 호국불교의 가치를 들고 나가는 경우와 평상시에 특정 종교세력이 자신들의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의 입장에 서서 호국불교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정치와 종교는 지나치게 멀어지면 잊혀지고, 지나치게 가까우면 태양에 타버리듯 권력의 속성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종교가 정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속화될 정도로 호국불교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Ⅲ. 호국불교의 유형과 특징

#### 1. 호국불교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호국불교를 수용형, 국교형, 전제형, 위민형, 생존형 등 다섯 가지 유

---

16) 김종만 2000.

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각국으로 전파되고 각 사회에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형태와 특징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불교의 초기 전파과정, 주류 종교로 정착한 이후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중심으로 하였다. 불교의 종단과 사찰, 그리고 승려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그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용형 호국불교는 각국에서 불교를 처음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왕실이나 정부에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불교를 활용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각국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사찰을 건립하고 경전을 편찬하고 사원 운영을 지원하는 양태를 보임으로써 불교의 전래 그 자체가 곧 호국(護國)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종단이나 스님들도 불교를 수용해주는 국가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됨으로서 수용형 호국불교의 특징을 보여준다.

국교형 호국불교는 특정 국가에서 불교가 국교(國敎)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모든 종교 활동이 불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형태를 말한다. 불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는 국법으로 이를 선언하고 불교의 모든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제형 호국불교는 불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에서 통치자인 왕이 정신적 지도자인 수행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호국불교적 특징을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티베트, 몽골, 부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제정일치사회에서의 호국불교를 의미한다.

위민형 호국불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가 국교에서 배제되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절대적인 종교적 지위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통치자가 타종교로 개종하면서 불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사라질 때 불교계에서는 위정자나 관료 중심의 호국불교에서 민중을 위한 보편적 종교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생존형 호국불교는 특정국가에서 소수종교로 전락했을 때 박해받고 탄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유형이다. 불교의 각 사찰과 스님들은 특정 국가와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갖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호국불교 활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호국불교의 여러 유형은 붓다와 전륜성왕의 관계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개념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 붓다는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인 반면에 전륜성왕과 같은

세간의 통치자들은 불교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호국불교의 유형 중에서 수용형, 국교형, 전제형 등은 불교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왕권이나 정치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민형과 생존형은 불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배척당할 때 그 대안으로 민중, 백성, 국민 등의 세력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으로 형성된 유형이다. 위민형은 불교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을 때 불교적 정서나 지지기반이 남아 있을 때 민중이나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활동으로 호국불교를 선택한 것이다. 생존형은 불교가 소멸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극한적 상황에서 선택하는 불교의 생존방법이다.

## 2. 호국불교의 유형별 사례와 특징

### 1) 수용형 호국불교

수용형 호국불교는 특정국가에서 지배계층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불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고구려의 소수림왕(재위 371~384)은 즉위 2년인 372년에 전진의 왕 부견(符堅)이 보낸 승려 순도(順道)가 가져온 불상과 경문을 받아들여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불교를 수입하고 공인하였다. 소수림왕이 불교를 도입한 이유로는 전진(前秦)과의 평화적 관계 수립과 불교의 호국사상에 대한 필요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375년 2월 초문사와 이불란사 등의 사찰을 창건하고 순도와 아도 등을 머물게 하였다.<sup>17)</sup> 광개토왕도 사찰을 건립하면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

백제는 침류왕(枕流王) 원년인 384년에 동진(東晉)의 마라난타(摩羅難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385년에 한산에 절을 지어 승려 10명을 출가시켜 거주케 하였으며, 아신왕은 392년에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는 교지를 내렸다.<sup>18)</sup> 신라의 불교는 법흥왕(法興王) 14년(527)에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를 통해 공인되었다. 이 시기의 불교는 민간이 아닌 국가와 왕실의 외교 및 후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국적(護國

1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11, 13-15. 392년(광개토왕 2)에는 평양에 금강사, 반룡사, 영탑사, 백록원사 등 아홉 곳에 절을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11, 23.

的)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19)</sup>

불교 수용기의 왕조에서는 삼보를 외호함으로써 불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형성해 가는 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모두 수용형 호국불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왕이나 권력자가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불교를 우대하면서 국가 통치와 국민적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 불교계 내부에서는 국왕이나 귀족들을 교화하고, 포교 거점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2) 국교형 호국불교

국교형 호국불교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국왕이나 국가에서 앞장서서 포교 및 전법교화에 앞장서는 특징을 보여준다. 불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대규모 불사를 벌이고 각 사찰에서는 국가와 왕실을 위한 기도를 조석으로 봉행한다. 국교형 호국불교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인 아쇼카 대왕이 행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불교계 내부에서 호국불교에 대한 인식은 없는 반면에 국가와 사회가 불교를 호국의 종교로 수용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국가에서는 국가와 정부, 왕실과 귀족들이 앞 다투어 사찰을 건립하고, 각종 불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가 됨으로써 불교계 내부는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신라시대에 호국불교는 왕권이 강화되고 왕실에서 불교를 국교로 확정하면서 왕권의 신성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호국불교 사상을 활용하였다. 그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왕과 왕비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짓기 시작했다. 진평왕은 백정(白淨), 왕비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라 하였고, 법흥왕은 법공(法空), 진흥왕은 법운(法雲) 등으로 지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불사가 진행되었는데 불국사(佛國寺)·흥국사(興國寺)·흥왕사(興王寺), 황룡사 9층탑 등이 지어졌다. 그리고 호국인왕경(護國仁王經)을 확산시키고, 국가의 안태(安泰)를 비는 백좌강회(百座講會: 仁王會)·팔관회(八關會) 등의 불교행사가 성행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에는 승직제도인 국통제(國統制)가 시행되었으며, 불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다. 승려들은 학문과 사상의 선각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19) 고익진 1989, 17-25.

추앙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당시 국가와 왕실이 불교에 대해 이와 같은 평가로 인해서 불교계에서도 원광(圓光)법사가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만들어 신라인의 도덕적 요강으로 실천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를 통해서 불교를 국교로 선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훈요십조 중 불교와 관련된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를 일으킨 대업(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이 보호하는 가피력에 힘입은 것이다. 선(禪)·교(敎)의 사원(寺院)을 새로 세워 주지(住持)를 뽑아 보내어 도를 닦아 각각 본업에 종사케 하였다. 후세에 간사한 신하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중들의 청탁에 따라서 각자 맡은 사사(寺社)를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을 것이니, 일체 이를 금하게 하라.<sup>20)</sup>

훈요십조에서 태조 왕건은 고려의 건국은 부처님의 보호와 가피력에 힘입은 것을 선언하고, 선교 양종의 사원을 국가가 건립하여 주지를 국가에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사원은 국가에서 건립하는 국찰로 하고, 주지는 국가에서 임명하는 승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불교의 사찰 운영과 소임자 임명을 국가에서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교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고려 광종(재위 949~975) 때는 승과를 실시하고, 국사와 왕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승려의 지위를 우대하였다.

국교형 호국불교는 스리랑카에서는 듯타가마니(Duṭṭhagāmaṇi, 100~77 B.C.) 왕의 집권기, 스리랑카 3대 종파를 대사과로 통합시킨 빠라끄라마바후(Parakrama bāhu, 1153~1186) 왕의 집권기<sup>21)</sup> 등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스리랑카에서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등에서 볼 수 있는 사찰 건축, 경전 편찬 등 적극적인 불교지원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현대 미얀마는 1961년 우누 수상에 의해 불교국교화를 위한 법안(The State Religion Promotion Act of 1961)이 통과되었고, 미얀마 헌법 제21조 1항은 '연방의 최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불교는 국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교화에 따라 국가 예산의 최소 5%를 종교사업의 재정 지원에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교인 불교교학의 연구와 불교정신의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제6차 결집 당시 공인된 경전과 주석서의 인쇄가 정부 허가제로 변경돼 국가 관리 하에 진행됐으며 제5차 결집의 결과물인 석경의 관리 등도 국가

20) 金錫根 1999, 337-369.

21) Panabokke 1993, 114.

가 전담하였다. 그러나 1962년 3월 네윈(1911~2002)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불교국교화를 폐지했다.

현대 유럽지역의 국가로서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운영되는 나라는 러시아연방의 자치국인 칼미키야 공화국이다. 칼미키야 공화국은 서부 몽골족에 속하는 오이라트족의 후손인 칼미키아족이 16세기말과 17세기초에 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해와 불가강 유역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1992년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된 칼미키야공화국은 인구 약 26만여 명 중에 칼미크족이 약 162,740여 명(57.4%, 2010년 현재)을 차지하고 있다. 칼미크 족은 몽골족의 후손으로 불교를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러시아 연방 자치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 3) 전제형 호국불교

전제형 호국불교는 ‘국가와 불교, 그리고 왕이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제정일치 사회에서의 불교적 모습을 의미한다. 전제형의 국가에서는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고 왕은 전륜성왕이면서 동시에 승왕을 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불교는 완전하게 정치 권력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僧職)은 왕이 마음대로 제수하고 왕사와 국사제도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 군주가 통치자이면서 정신적 지도자를 겸하는 형태가 바로 전제형 호국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아쇼카(BC 269~232) 대왕 시기의 불교는 전제형 호국불교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쇼카는 부처님의 법을 통한 통치, 즉 다르마 통치를 선언했고, 범무장관을 두어 불법(佛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관료와 국민들이 실천하는지를 감독하게 하였다. 당시의 마우리아 왕조는 불법을 공포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었고 국제포교사절단까지 파견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쇼카 왕의 통치시기를 전제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불교가 국교는 아니었으며, 국사나 왕사 제도가 없었고 기타 승직과 관직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수행자들은 자유롭게 수행하는 대신에 정치권력에 예속되지 않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불교 외에도 다수 종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타종교 수행자들도 존중받았다.

중국에서 전제형 호국불교가 등장한 시기는 양나라 무제(武帝, 464-549) 때의 일로 볼 수 있다. 양무제는 48년가 황제의 지위에 올랐고 불교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무제는 불교를 신봉하여 사원을 대대적으로 건축하는 한편 세 번이나 동태사(同泰寺)로 출가하는 사신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수 만개의 사찰을 건축하고, 황제이면서 가사를 걸

치고 금강경을 승려들에게 강의하는 등의 신행생활에 집중했다.<sup>22)</sup> 결과적으로 양나라는 존속되지 못하고 중대동(中大同) 2년(547) 동위(東魏)의 반장(叛將) 후경(侯景)이 망명했다가 반란을 일으켜 패망하고 양무제는 굶어죽었다.

태국이 국교형을 넘어서 전제형 호국불교로 전환된 것은 라마6세 와찌라우트(Vajiravudh, 재위 1910~1925) 때의 일이다. 와찌라우트 왕은 10년간 영국 유학을 다녀온 후 즉위하였다. 그의 통기에 타이(Thai) 민족주의 운동이 대두되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을 개편하고 '국가와 종교와 왕은 하나라는 이념이 확립되었다. 이로써 불교는 국교가 되었으며, 타이 국왕은 전륜성왕이면서 승왕과 같은 수준의 숭배 대상이 되면서 전제형 호국불교가 자리잡게 되었다. 라마 6세는 1916년 왕립 출랄롱콘(Chulalongkorn) 대학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여기서 배출된 불교인재가 태국의 지도층 인사가 될 수 있었다. 이후 태국은 관료나 정치인,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출가 경험이 있어야 할 정도의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

현대국가에서 전제형 호국불교의 양태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티베트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는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곧 국가의 수반이 되고 불교는 국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달라이라마 14세 때 중국의 침략을 받아 인도로 망명하여 망명정부 수반으로 티베트를 이끌어가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를 잃은 전제형 호국불교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에서 국가의 주요 직책은 대부분 승려들로 임명되고 있으며, 불교는 국교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2021년 들어서 티베트는 세속의 국가행정 수반과 승왕의 지위를 분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티베트 불교가 전제형 호국불교가 된 것은 북원의 왕 알탄칸(1507~1582)<sup>23)</sup>과 소남 가초(1543~1588) 사이에 맺은 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티베트가 전제형 호국불교로서 완전한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된 시기는 제5세 달라이 라마 갈와 롱상 가초(1617~1682) 때의 일이다. 1642년 달라이 라마 정권이 수립된 후, 드레풍사원의 주지는 티베트 국왕의 신분과 법왕(法王) 지위에 올라앉는 겔룩과 법왕의 지위를 얻었다. 당시에는 제5세의 제자였던 상게 가초(1653~1705)가 섭정을 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국가 원수로서의 정당성을 『문수리근본의궤경(文殊利根本儀軌經)』을 인용하여 주장함으로써 티베

22) 금강경의 과목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것은 양무제의 명에 의해 소명태자가 한 일로 알려져 있다.

23) 알탄 칸(俺答汗, 1507~1582)은 투메드 몽골 부족의 군주이며, 북원의 칸인 다얀 칸의 손자이며, 바르스 볼트 저년 칸의 차남이다. 1547년 보디 알라크 칸을 계승한 다라이손 구텐 칸의 치세에 알탄 칸이 대칸보다 강력하게 되어 동쪽으로 달아나야 했다. 오르도스지방에 분봉된 다얀 칸의 손자 알탄 칸은 16세기 중기부터 빈번하게 중국에 침입하여 1550년에는 북경을 포위하는 경술의 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는 관음보살의 교화의 땅으로 그리고 달라이라미는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몽골불교는 자나바자르(1635~1723)의 등장 이후 국교형 호국불교체계를 유지해 오다가 쩍툼담바의 환생자들이 활불(活佛)이 되어 종교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쩍툼담바 후특투 8세가 보그드 라마가 되어 몽골의 마지막 황제로 즉위하면서 몽골의 전제형 호국불교는 1911년부터 1924년 몽골제국이 완전히 소멸하고 몽골인민공화국이 등장할 때까지 10여 년 간 유지되었다. 이 시기는 황제가 승려이면서 전체 국민 약 70만 명 중 10만 여 명이 승려로 활동하였다. 몽골은 1924년부터 사회주의 국가로서 불교를 완전히 소멸시켰으나 1990년 민주화 운동으로 몽골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다시 변모하였다.

전제형 호국불교는 현대 국가 체계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전제형은 통치자가 국왕이면서 승왕을 겸직하면서 관직과 승직이 겹치는 국가 시스템에서 가능한 불교적 양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는 현대 지구촌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4) 생존형 호국불교

생존형 호국불교는 불교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호국불교를 선언하고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국가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이 다른 종교를 수용함으로써 불교 존립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 불교계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호국불교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국가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에서 불교계는 끊임없이 권력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권력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생존형은 불교가 사회적 지지기반도 상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왕실과 소수 귀족들만 남아 있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불교는 큰 공덕에도 불구하고 종교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해 갔다. 사회는 완전한 유교사회로 변모했고 사찰은 사하촌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헌신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상시 승려들은 무속인들을 지도하면서 감로탕화와 하단 공양의식으로 겨우 존립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찰들은 별로 없었고 존속되는 사찰의 대부분은 능침, 즉 왕릉을 지키는 사찰, 승군이 주둔하기 위한 사찰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일부 비보사찰들이 산속에 남아 있었다.

불교는 생존을 위해서 중앙에서 벗어나 변방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소리 없이 인재를 양성하고 소수의 외호자들에 의해 연명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호국불교의 가치를 들게 된다. 승려들은 도첩을 얻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역에 참여하고, 승군으로 입대함으로써 사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각 사찰들은 생존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왔는데 정조의 친불교적인 정책으로 인해 겨우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더욱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심해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것이 왕실의 원찰, 지방 호족의 원찰로 기능하면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불교 사찰이 권력자의 원찰로 유지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생존형 호국불교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위민형 호국불교

위민형 호국불교는 불교계 권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배척당하고 종교적 기반과 권력의 외호를 박탈당했을 때 권력자와는 거리를 두고 민중들 속으로 파고들어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민형의 호국불교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고 권력에 대항하면서 민중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미륵하생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호국불교 사상은 불교계가 적극적인 사회변화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민형 호국불교의 모습은 조선 전기 때의 불교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불교는 고려시대의 국교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교세력들과 심각하게 대립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적으로는 억불정책을 제시하고는 있었으나 왕실에서는 어느 정도 불교를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백성과 민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지지기반을 형성해 갈 수 있었다.

위민형의 호국불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중 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음으로서 불교의 사회적 기반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배척받을 때 나타난다. 반면에 현대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다수의 종교들이 경쟁하는 상태에서도 위민형의 호국불교가 등장할 수 있다. 왕조국가와 같이 지도층의 종교가 중요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질 때 위민형의 호국불교가 등장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불교계가 사회복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

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일종의 위민형의 호국불교라고 볼 수 있다.

## IV. 조선시대의 호국불교 사례

### 1. 조선시대 전기의 호국불교의 양태

#### 1) 조선시대 전기의 왕조와 불교의 관계

조선시대 전기는 1392년 건국과 더불어 즉위한 태조(재위 1392~1398)부터 제13대 명종(1545~1567) 시대까지 약 175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조선왕조에서 불교는 승유억불의 피해자였다. 그렇지만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와 왕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태조 이성계(1335~1408, 재위 1392~1398)가 조선을 건국할 때 자초무학(1327~1405)을 비롯한 불교세력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학대사는 1392년 조선건국과 함께 왕사의 지위에 오른 뒤 한양천도를 비롯하여 조선을 수호하기 위한 비보사찰의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 시기에 호암사, 흥천사 등 다수의 사찰이 건립되었고 진관사에 수륙사를 건립했다. 그렇지만 개국공신 정도전은 불씨잡변을 저술하고 억불론을 주장하면서 억불승유 정책을 예고했다.

조선 3대 태종(1367~1422, 재위 1400~1422)은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주도하고 조선 제3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기틀을 잡았고 억불승유정책의 일환으로 1406(태종 6)년 전국의 사찰을 선교양종 242개사로 통폐합하고 전국 사찰의 재산과 노비를 몰수했다.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태종은 1418년(태종 18) 자신의 넷째 아들 소경공(昭頃公)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고양시에 있는 대자암을 창건하였다.

태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령대군(1396~1486)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신심이篤실하여 수많은 유신(儒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도(僧徒)를 모아 불경(佛經)을 강론하도록 했다. 1435년 회암사 중수를 건의했고, 1464년(세조 10)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하게 되자 조성도감 제조(造成都監提調)가 되어 역사(役事)를 친히 감독했고, 『원각경(圓覺經)』을 국역(國譯)하여 간행하였다.

조선 제4대왕 세종(재위 1418~1450)은 신미대사의 도움으로 한글을 창제, 반포하고 집현전을 두어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세종 6년에 불교를 혁파하여 선교 양종

각 18개 사찰 등 총 36개 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암을 폐사시켰다.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 진관사에 사기독서당과 연구소를 설치하고 비밀리에 왕래하였다.

이 시기에 함허기화(1376~1431)와 신미(信眉, 생몰연대 미상) 대사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함허(涵虛)는 조선초기 사대부 세력들에 의해 배불정책이 극에 달했을 때 불교 비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불교의 정법을 밝히고자 노력했다.<sup>24)</sup> 신미대사는 세종을 도와서 궁궐 내에 내원당(內願堂)을 건립하고, 속리산 법주사 말사인 복천사(福泉寺)를 중수하고, 한글 창제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그 공로로 제5대 문종(文宗, 1414~1452, 재위 1450~1452)에는 선교도총섭에 임명되었다.

문종(1450~1452)은 2년여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이었으나 오랜 기간 세자로서 세종을 대신하여 정무를 보았다. 문종의 아들 단종(1452~1455)이 12세에 즉위하였으나 계유정란으로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200년 후인 숙종 때 왕위를 다시 찾아 단종이라 불렸다. 단종비 정순왕후(1440~1521)가 출가하여 동대문 청룡사에서 60여 년간 수행하면서 조선전기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로 즉위한 후 국조보감, 경국대전 등을 편찬하고 관제를 개혁하였다. 1458년에는 해인사 대장경 50부를 인경하였고, 1461년에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신미대사 등의 도움을 받아 많은 불교문헌들을 번역 간행하였다.

성종(재위 1469~1494)은 억불정책을 강력히 시행했고,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조선초기의 문물제도를 완성하였다. 세종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13세에 즉위하여 1476년까지 정희왕후 윤씨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성종은 사대부 가문의 양반들이 출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도첩제를 실시하였고, 부녀자들의 출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도첩제를 폐지하기 전에는 양반가에서 승려가 되려면 포 100필, 일반 백성은 포 150~200필을 바치도록 했다. 그렇지만 1492년에는 도첩제를 완전히 폐지하여 출가를 원천봉쇄했다. 도첩이 없는 승려는 모두 군역이나 부역에 종사하게 했다.

연산군(재위 1494~1506)은 폭군으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병인사화 등을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죽였다.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연산군은 흥천사, 흥덕사, 대원각사 등을 폐찰시켰으며, 승려들을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왕조 제11대 중종(中宗, 1488~1454, 재위 1506~1544) 때에는 선교양종을 폐지하고,

24) 함허는 유불선 삼교일치론을 바탕으로 불교가 배척당하는 시기에 경전 강의로 승속을 지도하고 『금강경 오가해설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술을 남겼다.

승려배출 통로인 승과고시를 폐지하면서 유생들은 전국의 사찰들을 불태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교를 향한 유생들의 테러가 만연되었다.

제13대 왕 명종(재위 1455~157)은 중종의 둘째 아들로 12세에 즉위하여 문정대비가 섭정하였다. 을사사화, 정미사화, 을유사화, 을묘왜변 등 격변기였다. 그러나 문정대비 윤씨(1601~1565)에 의해 승과가 부활되고, 봉은사, 회암사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허응당 보우(普雨)의 노력으로 중종의 능을 봉은사로 이장하고, 도첩제와 승과 시험을 부활시켰으며, 선종본사로 봉은사, 교종본사로 봉선사를 지정했다. 이 때 실시한 승과로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과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 등 많은 스님들을 배출했다.

## 2) 조선시대 전기의 승군들의 호국 활동

승군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승군활동은 1401(태종1)년에 태상왕의 지위에 있던 태조 이성계가 석왕사 서쪽에 궁전을 짓기 위해 승려들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25칸에 해당하는 궁을 짓기 위해 동원된 공장과 승인이 총 80명이고, 독승군 50명을 추가로 징발하였다.<sup>25)</sup> 이후에도 1412(태종 12)년 궁전의 행랑을 조성하기 위해 승군 500명을 징발했다.<sup>26)</sup> 태종조에 행랑, 누각, 창고 등을 짓기 위해 동원된 승군은 5회에 걸쳐서 총 2,630명이었다.

제4대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1433(세종15)년 태평관 건립에 승군 1천명을 동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왜구들이 자주 침탈하는 지역에는 승군을 수졸로 배치하였고, 1437(세종19)년 흥천사 중창을 위해서 600명의 승군을 30일간 동원하고 15일 이상 노역 승군에게 도첩을 주었다.<sup>27)</sup>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해에는 왕의 능을 조성하는 일에도 승군이 동원되었는데 돌을 끄는 승군들 중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때 제조와 낭청 등을 의금부에서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다.<sup>28)</sup>

문종(1450~1452)은 재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승군을 동원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문

25)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1일 기유 2번째 기사 1401년: 동북면 도순문사 강사덕이 공평한 조세 부과 등 3개 조목을 건의하다.

26)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오 2번째 기사 1412년: 개천도감을 행랑 조성도감으로 삼아 시전을 건설하다.

27)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계유 3번째 기사 1438년: 승군을 사역시켜 사리각을 수리하게 하다.

28)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7일 갑신 2번째 기사 1446년: 하연·황보인 등과 관원의 도태를 의논하다. 대부인에게 노비 20구를 주다.

종실록에는 진관사 수륙사 기와불사에 총 500명 승군을 2개월 동안 동원하였다.<sup>29)</sup> 조선 제9대 왕 성종(재위 1469~1494)조에는 승려들이 궁궐을 짓고 도첩을 받는 것에 대한 폐단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483(성종14)년에는 흥응이 승군 부역자로 도첩을 받은 자가 2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군정을 도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청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은 “승도를 부역시키는 것은 선군을 쉬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도첩을 주더라도 나라에는 이익이 된다.”라고 말했다.<sup>30)</sup>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당시 승군의 동원은 수군이나 육군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게 함으로써 정병의 고역을 덜어주고 휴식을 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0대 연산군(재위 1494~1506)은 1504(연산10)년 연산군은 왕자의 이궁을 짓는 일에 외방이 승군(僧軍)을 동원하라고 하교하였고, 각도의 승군을 장부에 기록하고 다음 해에 후원의 해자(垓字)를 파게 하라고 지시하였다.<sup>31)</sup> 실록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의 조정에서 궁궐의 전각 신축, 궁궐을 보호하는 해자를 건설하는 일 등에 승군을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재위 1506~1544)은 1536년 견항진을 막는 공사에 승군 1천8백여 명을 동원했다.<sup>32)</sup> 견항진 공사는 대규모 국가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승군의 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승군들은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여 참여하였으며,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록에서 밝히고 있다. 이때에는 도첩을 주는 대신 호패를 줌으로써 승려를 양민으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3대 명종(재위 1545~1567) 때에는 문정대비가 불심이 매우 돈독하였고 허응당 보우스님과 의 법연으로 인해서 친불교적인 정책이 등장했다. 1547(명종2)년에는 동궁조성도감(東宮造成都監)의 승군(僧軍) 동원을 중지시켰다. 이유는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려운데 밥도 주지 않고 승군을 동원하는 것은 하늘이 낸 백성에게 원망을 사는 일이라고 하였다. 1557(명종12)년에는 도첩과 호패가 있는 승려들에게 부역을 면제하도록

29)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3일 정미 10번째 기사 1450년: 진관사 부역 승려의 충원 방법 등을 예조에 전지하다.

30)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4일 계해 1번째 기사 1483년: 승도의 부역과 풍속의 규찰을 논의하다.

31)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12일 기사 4번째 기사 1504년: 일 없는 각도의 승군을 장부에 기록하여 다음 해 해자를 파게 하라고 전교하다.

32)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2월 6일 신묘 1번째 기사 1536년: 견항진 공사 등에 대한 구언.

전교했다.<sup>33)</sup> 1561(명종16)년에는 중종의 묘를 정릉에서 봉은사 자리로 천장할 것을 결정하고 천릉도감을 설치하고, 선교 양중에서 1천명의 승군을 각 도에서 선발하도록 하교하였다.<sup>34)</sup>

## 2. 조선 중기의 호국불교 활동 실태

### 1) 조선 중기 시대상황과 불교

조선 중기는 제14대 왕 선조(1567~1608)가 즉위한 때부터 제19대왕 숙종(1674~1720) 재위기간까지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외적의 침입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내부적으로는 사색당파가 노골적인 대립을 하면서 권력투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선조 때에는 1583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탕개(李蕩介)를 중심으로 한 야인(野人)들이 침략하여 경원부가 함락되었으며 신립(申滉)과 신상절(申尙節)의 반격으로 두만강 유역을 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1592년 왜적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1597년 왜군의 재침으로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선조 때에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자 정규군으로 국토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승군을 징발하여 전쟁 참여를 독려하였다. 서산대사를 선교양종팔도도총섭으로 임명하고 격문을 보내 승군을 모았다. 이 때 조선의 승려들은 모두 구국의 일념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승군을 넘어서서 의승군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 임진왜란기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의엄대사 등이 차례로 도총섭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조정에서도 의승군(義僧軍)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으며 백성들 또한 불교와 승려들에 대해서 조선 전기와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광해군이 조선의 제15대 왕(재위 1608~1623)으로 즉위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 부국강병의 기틀을 다졌지만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반정으로 조선의 제16대 왕(재위 1623~1649)으로 즉위한 인조는 반금친명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1627년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이 발발했고, 1636년에는 청의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 항복하고 청과는 군신의 관계를 맺었다. 인조 사후 세자 봉림대군이 조선 제17대왕 효종(재위 1649~1659)으로 즉

33)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4월 19일 임인 2번째기 기사 1557년: 도첩과 호패가 있는 승도의 부역을 면제하는 일을 논의하다.

34) 『명종실록』 27권, 명종 16년 10월 30일 1561년: 천릉도감이 승군을 뽑아 부역시키기를 아뢰다.

위하였다. 효종은 세자 시절에 청나라에서 8년간 볼모로 생활했으며, 즉위 후에는 군제를 개편하고 대동법 실시와 상평통보를 유통하는 화폐제도를 도입했다.

조선 제18대 왕으로 즉위한 현종(재위 1659-1674)조에는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극심하여 국력이 약해지고 질병과 기근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생활도 곤궁해졌다. 이어서 현종의 아들인 숙종(재위 1674-1720)이 1667년 왕세자로 책봉되었다가 1674년 14세에 조선왕조 제19대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숙종은 집권 초기 당쟁이 극심하자 이를 극복하고 북방의 침략에 대비하여 산성을 축조하는데 집중하였다. 당시에 축조된 산성은 대흥산성, 용강이 황룡산성, 강화도의 돈대 49개소, 북한산성 수축 등이 있고, 금위영 창설 등을 통해서 집권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조선 중기의 불교는 허응당 보우의 법맥이 계승되면서 조선불교의 정통을 이어갔다. 서산대사의 활동은 의승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불교의 종문 또한 그 문하에서 배출된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서산대사의 좌선견성(坐禪見性)의 종풍은 선·교 양종의 통합과 함께 조계종(曹溪宗)의 법맥으로 이어졌다. 서산대사는 염불과 선(禪)을 동일시하고 더불어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고 유·불·선 3교의 일의(一義)를 제창하고 문하에 유정(惟政)·언기(彦機)·태능(太能)·일선(一禪)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숙종은 진관사(津寬寺)를 재건하고 친불교적 성향을 보였으나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천류로 떨어지고, 불교는 궁중이나 민간에서 부녀자들이나 믿는 소수의 종교가 되었다.

## 2) 임진왜란기의 의승군의 활동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왜군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이 파죽지세로 전 국토를 유린해 오자 선조는 승통을 설치하여 승군을 모집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묘향산에 주석하고 있던 승관 휴정, 서산대사에게 도총섭의 직제를 내리고 의엄을 총섭으로 관동의 유정과 호남의 처영을 장수로 삼아 승군을 일으키게 했다.<sup>35)</sup>

임진왜란기에 승군은 왜적과의 접전역량은 다소 부족했으나 경비와 역사, 축성과 조선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영규대사가 의병장 조헌을 돕다가 금산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700여 명의 승군이 사망하는 비보를 들어야 했다.<sup>36)</sup> 동년 12월에 선조는 군사들에게 군량미 공급을 위해 승군의 절반을 정

35)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7월 1일 1592년: 승통을 설치하여 승군을 모집하다.

36)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2일 1592년: 선유사 윤승훈을 인견하여 전라·충청의 전투 상황 등을 묻다.

주 등에서 운송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승군들은 군량미 운송에 필요한 활동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다했다. 그렇지만 조정에서는 승군들을 모집하여 전쟁에 참여시키면서도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지 못했다. 심지어 서산대사 휘하의 의승군들도 군량미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의승군들은 1593년 2월에 행주산성 전투에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기간에 승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산대사는 제자 쌍언을 비변사에 보내어 상주하기를 선종과 교종에서 각각 판사를 차출하여 승군을 거느리도록 요구하였다. 이 때 승군의 지도부의 명칭이 도총섭-총섭 등으로 정해졌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불교의 부흥을 견제하고 있었으며, 의승군의 안전과 불교적 이상보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소모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 승군들은 군량확보를 위한 종자파종, 화살 제조, 화포교습 등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승장 유정은 의령에서 보리를 파종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상우도 총섭승 신열은 사찰의 위전에 보리종자를 파종하였다. 또한 가야산 해인사에서 화살을 만들고, 각 승군들이 화포 연습에도 적극 참여하였다는 것이 비변사의 기록에 담겨있다.

1594년 2월 비변사에서는 삼가의 악견산성, 합천의 이송산성, 가야산의 용기산성, 지리산의 귀성산성 등은 총섭장군 유정에게 맡겨 성을 수축하고 수비에 임하도록 전교하였다. 또한 장성의 입암산성은 승군 법견에게 주관토록 하며 부총섭의 관교를 성급해주고 인자를 내려 권장하도록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는 산성을 지치는 승군장에게 총섭의 관교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요구했다. 훈련도감에서는 승군들에게 조총과 도창의 훈련을 시행하였고 승군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에 동참하였다.<sup>37)</sup>

사산의 문하에 있던 사명대사는 1593년 의승군을 통솔하여 평양성 회복과 영남 의령(宜寧)의 전공을 세웠고 도총섭의 직함을 받았다. 그런데 서애 유성용과 권율(權慄) 등이 도총섭 사명대사 유정을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특사로 보냈다. 사명대사는 조정의 명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가토기요마사를 만나 강화회담을 이끌었다.

1594년 5월에 이르러 의승군들은 한강 상류 용진에 주둔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용진은 왜적이 침략한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방비하고자 승군을 모아 조현시

37)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7일 1594년: 비변사에서 입암산성 등의 수축을 총섭장 유정과 승군에게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키고 둔전을 개간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도총섭에 임명된 의엄은 비변사로 장계를 보내 관교에 어보를 찍어 문서로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도총섭의 임무를 조정에서 직접 발령함으로써 공식적인 문서로 받기를 원한 것이다. 1594년 7월에는 남원의 교룡산성을 수축 하는 일을 의승장 처영(處英)에게 맡겨졌다.<sup>38)</sup>

1595(선조28)년에 총섭승 견우(見牛)에게 월계산성(月溪山城)의 수축과 둔전 경작의 일이 주어졌으며 파사산성의 수축을 맡은 의엄은 도총섭의 지위를 제수받았다. 파사산성 수축에 동원한 승군은 5백여 명이였다. 종전이 되자 조정에서는 1604년 사명대사를 특사로 파견하여 일본과의 강화회담을 주도하도록 전권을 위임하였다.

전란 이후의 승군 활동은 왕릉 관리, 궁전 건립 등에 동원되었다. 1621(광해13)년에는 인경궁 공사를 위해 각도의 승군 1천5백명을 차출하여 추가 배정했다.<sup>39)</sup> 1624(인조2)년 6월 27일 비변사에서 충청도의 승군 200명을 평양성 축조에 한 달 간 동원하였다.<sup>40)</sup> 인조의 집권기에는 승군 동원이 너무 지나쳐서 조직적인 반발이 나타나기도 했다.

1652(효종3)년에는 병조에서 역군으로 쓸 승군을 각도에 배정하고 이를 조정에 보고 했는데 당시에 전국에 배정된 승군의 수는 총 1,300명 규모였고, 추후 800명을 더 배정함으로써 승군의 규모가 2,100명을 넘어섰다.<sup>41)</sup> 현종 즉위년인 1659년에는 산릉도감에서 승군 1천명을 차출하여 선왕의 능을 조성하는데 동원하였다. 그런데 산릉에 부역하러 나온 승군들이 막사를 태우고 모두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많은 승군들이 추위와 괴로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방화 후 도망한 것이었다.

1669(현종10)년에는 문자를 아는 승려를 선발하여 승장으로 임명하고 큰 사찰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승군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승군의 하루 부역이 민정의 3일 일한 양에 해당되는 효과성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서 전국에 폐사되었던 사찰이나 기존의 사찰을 중건하여 승장의 관직을 받은 승려들이 공식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sup>42)</sup>

38)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9일 1594년: 비변사가 남원 산성을 수축하는 일을 아뢰다.

39) 『광해군일기』(중초본) 161권, 광해 13년 2월 1일 1621년: 인경궁 공사를 위해 각 도 승군 1천 5백 명을 추가 배정하다.

40)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6월 27일 1624년: 비변사에서 충청도의 승군 2백 명을 징발하여 평양성을 쌓게 하자고 건의하다.

41)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월 2일 1652년: 병조가 역군으로 쓸 각도의 승군을 배정하여 아뢰다.

42)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6월 20일 1669년: 왜국에 대한 경계, 연환, 환곡, 수령의 출척, 승군에 대한 대

1671(현종12)년에는 기근으로 죽은 무연고 망자의 시신이 약 7,000여 구를 경기도에서 징발한 승군 200명을 동원하여 매장하게 하였다. 1674(현종15)년에 동원된 산릉 역사에 동원된 승군은 각 도에서 징발하였는데 경기 50명, 충청 150명, 황해, 원양, 평안, 함경 등의 도에서 1백 명,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각각 800명을 징발하였다. 승군들은 각자 1개월의 식량을 자체 준비하여 산릉 부역에 참여했다.<sup>43)</sup>

숙종이 즉위하면서 1674년 현종의 능 조성을 위해 승군 2,650인을 징발하였고, 1677(숙종3)년에는 경상도의 왜관을 짓는 역사에 호남의 승군을 차출하였으며, 1679(숙종5)년에는 강화도 38개 돈대 역사에 승군을 차출하여 10일 정도 부역을 시켜 완성하도록 했다. 1713(숙종39)년에 동래의 금정산성을 축성하기 위해서 승군의 집단 거주 지역을 설치하고 해월사와 국청사 승도 100여 명과 범어사 승도 300여 명이 동원하였다. 1717(숙종43)년 당시 세자가 청주 인근에 있는 상당산성 축성에 1000여 명의 승군 부역을 결정하였다.<sup>44)</sup>

### 3. 조선 후기 호국불교 활동

#### 1) 조선 후기 시대상황과 불교

조선시대 후기는 영조(재위 1724~1776)시대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의 순종(재위 1907~1910) 시대까지로 설정하였다. 영조 집권 이후 18세기에 접어든 조선왕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영조는 탕평책을 시도하였으나 사색당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세력에 의존함으로써 당파 대신에 왕권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이 등장했다. 52년간 재위하면서 균역법을 시행하고, 신문고를 부활하였으며, 동국문헌비고 발간 등으로 왕조 부흥의 기틀을 만들었으나 사도세자의 죽음과 을사환국 등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권력투쟁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정조(재위 1766~1800)는 탕평책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였으며 새 활자를 만들고 실학을 발전시키는 등 문화적 황금시대를 열었다. 정조는 부친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인 현릉원(顯隆園)을 화산으로 옮긴 후, 1790년 갈양사 자리에 능사(陵寺)로서 용주사를 세우고 부친의 명복을 빌었다. 갈양사는 고려 952년에 병란으로 소실되었다. 용주사는 갈양사 자리에 창건한 사찰이다. 영조와 정조는 합하여 86년간 재

---

위에 대해 논의하다.

43)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3월 3일 1674년: 승군을 동원하여 산릉의 역사에 나가게 하다.

44)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 12월 25일 1717년: 충청병사가 상당산성 축조에 관해 장계를 올린다.

위하였기 때문에 18세기 전체를 두 사람의 왕이 담당하였다.

순조(1800~1834) 때에는 김조순 등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신유사옥을 비롯한 천주교 탄압이 일어났고,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19세기 초반에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으며, 기근 등으로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다.

헌종(재위 1834~1849)은 8세에 즉위하여 순조의 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등 두 외척 사이에 세력다툼이 발생하였으나 1846년 조만영이 죽자 안동김씨가 득세했다. 상시 삼정(三政)이 문란해지고 국정이 혼란해서 민생고는 더욱 가중되었다. 1837년에 각도에 제언(堤堰)을 수축하였다.

철종(1849~1863)은 헌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명으로 조선 제25대 왕으로 19세에 등극하였다. 즉위 직후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1852년부터 친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에 어둡고 안동김씨의 전횡으로 민생고를 유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민란이 자주 발생하였다. 최제우가 주창한 동학사상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서양종교인 천주교도 민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고종(1863~1907)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조선 제26대 왕으로 즉위했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나 구미열강의 문호개방 압력에 시달리다가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퇴위하였다.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세력다툼 속에 개화파와 수구파가 대립했고, 병자수호조약, 한미, 한영수호조약 등을 체결했다.

순종(재위 1907~1910)는 고종의 둘째 아들로 조선의 제27대왕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황제였다. 일본인의 한국관리 임용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정치가 일본인 손에 넘어갔으며, 1910년 망국의 길로 들어서서 이후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이어졌다.

조선후기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 간 지속되었으나 영정조 시대를 제외하고는 당파싸움과 권문세가의 세도정치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다. 조선후기에 가장 친불교적인 왕은 제21대 영조였다. 영조시대에는 용주사를 창건하는 등 사찰의 건립과 불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승군 동원도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 2) 조선 후기의 승군 활동 실태

영조 이후 승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이 사찰과 승려를 침탈하고 가학(加虐)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어사 박문수는 장차 승군이 이산할 조짐이 있다고 1728년에 조정에 보고했다.<sup>45)</sup> 당시의 문제는 임란 이후 공로자나 왕의 친인척들에게 봉록으로 땅을 준 절소투지가 4대를 지나면서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곤궁해지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에도 변화가 생기고 토지제도 등에도 모순이 나타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729(영조5)년에는 사찰의 주지, 승장의 소임을 총섭과 장교승으로 호칭을 변경하였다. 이 제도는 북한산성 소속의 각 사찰 주지와 승장에게도 시행되었으며, 남한산성에 서도 그대로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5)</sup>

1731(영조7)년에 동래부 축성을 하는 부역에 경상도 지역 승군 7,091명이 징발되어 부역하였다. 이 중 동래부 승군은 2차에 걸쳐 980명이 징발되었고 부역일수도 1차 34일, 2차 55일에 달했다. 승군 징발과 승작대 설치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찰들은 탁발, 전지 개간, 누룩 만들기, 방아찝기, 품팔이 등을 통해 사원경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1749(영조25)년에는 김상로가 두만강 변에 있는 무산 차유령과 회량 무산령, 종성 가과령 등의 세 곳의 수비를 승군에게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오지의 국토방위를 승군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많았다. 이러한 정책은 승군의 활동을 통제하고 변방으로 축출함으로써 새로운 번영의 싹을 겨우 틔우고 있는 불교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남한산성 안의 남한치영은 각 도에서 의승을 불러서 번을 서게 하였고, 성 안의 9개 사찰 승군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하였으며, 도총섭 1인 밑에 중군(中軍) 1인, 교령관 1인, 초관(哨官) 3인, 기패관(旗牌官) 1인, 성 안팎 10개 사찰의 원거승군(原居僧軍) 138명, 의승(義僧) 356인을 두었다.

북한산성의 북한치영은 1711년에 북한산성을 쌓음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다. 주위 7,620보에 장대(將臺) 3곳, 대문 4곳, 암문(暗門) 10곳을 비롯하여 도총섭이 있는 중흥사(重興寺)를 중심으로 태고사·노적사·서암사·경흥사·국영사·원각사·부황사·보광사·보국사·용암사·봉성암 등 11개 사찰이 있었으며, 이들 사찰에 승군들이 머무르면서 산성을 수호하였다.

승영에는 도총섭 1인과 중군·좌별장·우별장·천총(千總)·과총(把總)·좌병방(左兵房)·우병방 각 1인, 교련관·기패관·중군병방(中軍兵房) 각 2인, 오기차지(五旗次知) 1인, 도훈도(都訓導)·별고감관(別庫監官) 각 1인, 사료군(射料軍) 10인, 서기 2인, 통인(通

45)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23일 1728년: 어사 박문수가 상주 사대부들의 사승 침학 등에 관해 아뢰다.  
46)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 10월 26일 1729년: 각 사찰의 주지 승장 등의 소임을 총섭의 부하 장교 등으로 차임하도록 아뢰다.

리) 2인, 고직(庫直) 3인, 책장무(冊掌務)·판장무(板掌務) 각 1인, 취수(吹手) 2인, 각사승장(各寺僧將) 11인, 수승(首僧) 11인, 의승 350인을 두었다.

조선의 제23대 왕(재위 1800~1834)으로 즉위한 순조의 실록에서는 승군에 관련된 기록이 한 번 등장한다. 각화사 승군에게 오대산 사고에 준하는 승군의 예에 따라서 요미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sup>47)</sup>

각화사는 경상북도 봉화군 각화산(1,177m) 남쪽에 있는 사찰로 1777(정조 1)년에 이곳에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를 지어 왕조실록(王朝實錄)을 수장하게 하였으며, 수도하는 승려가 800명이 넘어 3대 사찰의 하나가 되었다. 왕조실록을 모신 각화사에 승군 주둔에 필요한 쌀을 공급하는 문제가 등장하니 조정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1863년 고종이 조선 제26대 왕으로 등극하고 이후 대한제국 제1대 황제(재위 1863~1907)가 되었다. 고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승군의 기록은 주로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에 주둔하는 승군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1866(고종3)년 강화도에 외국의 선박이 나타나자 강화도로 통하는 육로 요충지에 산성을 수호하는 승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sup>48)</sup> 이에 승군들은 충용청의 지시를 받고 양주진(楊州陣)으로 배치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승군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치영에 배치되었고, 왕조실록을 보관한 강릉 월정사, 무주 적상산성, 봉화 각화사, 강화 전등사에 수호승군으로 근무하였다. 승군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

갑오경장으로 승군제도가 폐지되면서 각 사찰이 승도들에 대한 군역이 면제되면서 사원은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불교를 총괄하는 사서관리서가 만들어지고 불교계를 관리하는 승정제도가 도입되었다. 1902년에 원흥사가 창건되면서 대법산이 되고 전국 주요 사찰이 중법산으로 편입되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8년 원흥사에서 원종 총무원을 창립하고 종정을 추대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불교 번영의 서막을 열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과 사찰령 등의 반포로 불교계는 항일 광복운동에 뛰어들었다.

조선후기 승군제도는 국가 군역제도에 편입됨으로써 국법에 의해 유지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비록 정규군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수도 많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국가 공사에 부역할 일이 있을 때 동원되는 승군의 수가 최대 5000명까지 증

47) 『순조실록』 14권, 순조 11년 3월 30일 1811년: 비국에서 제도와 각도의 전후 진폐 책자를 가지고 조목조목 회계하다.

48)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10일 1866년: 강화로 통하는 육로요충지를 엄히 경계하도록 하다.

원되는 것은 각 사찰에서 거주하는 거주승의 수가 그것을 충당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군의 핵심 세력은 남한산성내의 9개 사찰, 북한산성내의 11개 사찰, 그리고 왕조 실록을 지키는 4대 사찰의 승군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전국의 본사급 사찰에 주석하는 거주승들도 상당수에 달했기 때문에 숙종이후 영정조 시대부터 사찰의 대규모 불사가 가능해졌다. 당시 승군들은 목공, 와공, 철공, 석공, 화공 등 사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과 목재만 후원된다면 불사는 얼마든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조선조 후기에 불교가 불사를 통해 교세를 넓혀가는 토대가 되었다.

## V. 결어

본 연구에서는 호국불교의 관점을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등의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긍정적 관점은 불교의 현실적 역할을 중시하는 평가이고 부정적 관점은 계율과의 모순성을 강조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민형 호국불교라는 관점에서 보편성과 계율을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국민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불교권 국가들의 전개과정을 분석해 보면 호국불교는 매우 보편적인 양태를 보여주는데 시대와 왕조의 변화, 불교와 권력과의 관계, 불교계의 노력 등의 변수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호국불교는 수용형, 국교형, 전제형, 위민형, 생존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불교의 수용과정, 불교국가에서 국교로서의 역할 수행, 제정일치 사회에서 전통성왕과 승왕의 일치 여부, 소외받는 불교가의 돌파구, 소멸위기로 간 불교계가 회생과 생존을 위한 노력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호국불교활동은 생존형과 위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왕조와 사대부의 냉혹한 억불정책에 대응하여 생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생존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첩제의 복원을 통한 출가자 확보, 사찰의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선택한 것이 국책사업에 부역하는 것, 왕능을 지키는 능사로서의 사명 변경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이 발발했을 때는 호국과 위민을 위해 승군들이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조전왕조 후기에 들어서는 국

민들의 어려운 생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위민활동을 전개했다.

조선 전기는 1392년 태조 즉위부터 1567년 조선 제13대 왕인 명종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의 승군활동은 주로 궁궐의 행랑, 종루, 군자고 등 창고 축조 공사에 동원되었다. 성종조에는 도첩제를 폐지하였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노역에 참여한 승군에게는 도첩을 주었다. 명종조에 이르러 허응당 보우와 문정대비의 법연이 맺어지면서 불교에 대한 조정의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승군이 식량도 배급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일은 크게 줄었다.

조선 중기는 제14대왕 선조가 즉위하던 1567년부터 숙종조인 1720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의 외침을 비롯해서 내부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조선 중기의 승군활동은 주로 의승군과 의승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때의 불교계는 전란에 휩쓸린 조국과 백성들에 대한 보은의 마음으로 불살생계를 내려놓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전란기에 의승군들은 서산, 사명, 각성 등의 지도력에 힘입어 큰 전공을 세웠다. 전란 이후 승군들은 주로 산성축조에 동원되었고 산성을 지키는 일이 주로 주어진 임무였다. 당시 승군의 하루 부역은 민간 장정의 3일치 노력에 비교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는 1724년 영조 즉위부터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영조와 정조는 비교적 친 불교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후 국가 부역에 동원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다. 임진왜란 이후 의승군의 활동으로 민중들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위상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1800년대 들어 사찰에 대한 공납과 과세가 과도해지고, 승군들은 산릉 공사, 방파제와 산성 축조 등에 동원되었다. 불교계 인사들 중에는 갑신정변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했으나 갑오경장이 3일천하로 끝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이 해제되고, 승군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에 예속되었던 조선시대의 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2015년부터 다수 종교의 지위를 내어주고 다종교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용형, 국교형, 전제형 호국불교의 위상은 과거의 일일 뿐 현재의 한국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는 위민형 호국불교로 시민사회 속으로 불교가 확산되어야 하지만 포교활동 부재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교는 생존형 호국불교를 지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불교는 보편적 가치관과 세계화의 포교 전략을 바탕으로 각 국가와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잘 계승하는 세부적인 포교방법을 수립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보편화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각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잘 반영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치유와 상담, 그리고 명상을 통한 지혜와 자비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호국불교는 국교형, 혹은 전제형의 특성보다는 위민형의 호국불교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무종교인이 급증하고 있고, 이종종교 혹은 다종종교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조정치 하에서의 호국불교적 양태나 제왕적 전제정치 상황에서의 호국불교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호국불교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노력하는 불교적 노력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교계가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정치적 이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범교화의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익진. 1989. 『한국 고대 불교 사상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근호. 2003. 「서산 대사, 그리고 호국불교의 가능성」 『불교평론』 17: 2-15.
- 金錫根, 1999. 「훈요십조와 시무 28조 : 고려 전기(前期) 정치사상에 관한 소묘(素描)」 『亞細亞研究』 101.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 김순석. 2012.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국불교의 재검토-역사적 사례와 이론」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81.
- 김용태. 2012. 「한국불교사의 호국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 『불교평론』 17: 43-73.
- 김종만. 2000.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불교평론』 3. 서울: 불교시대사.
- 다나카 기미야키 지음, 유기천 옮김. 2010. 『티베트 밀교 개론』 불광출판사.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11.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 사사키 교고 등 공저, 권오민 역. 1985. 『인도불교사』 경서원.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도서출판 이산.
- 이시하마 유미코 지음, 김한웅 옮김. 2007.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나라』 도서출판 이산.
- 이운허. 2013. 『묘법연화경』 동국역경원.
- 조기룡. 2016. 「임진왜란기, 서산대사와 의승군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대홍사 서산대사 학술세미나 자료집』: 21-46.
- 조준호. 2012. 「경전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검토」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 20.

Panabokke, Gunratana 1993. *History of the Buddhist Sangha in India and Sri Lanka*, Colombo, The Postgraduate Institute of Pali and Buddhist Studies, University of Kelaniya.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1, 23권; 『세종실록』 80, 112권; 『문종실록』 1권; 『성종실록』 159권; 『연산군일기』 56권; 『중종실록』 81권; 『명종실록』 22, 27권;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실록』 30, 48, 53

권; 『광해군일기』[증초본] 161권; 『인조실록』 6권; 『효종실록』 8, 17권; 『현종실록』 22권; 『숙종실록』 60권; 『영조실록』 18, 24권; 『순조실록』 14권; 『고종실록』 3권

## Case studies into Anti-Buddhism Policies & Patriotic Buddhism of Joseon dynasty

EungChul KIM

(Department of Buddhist Society Joong-Ang Sangha University)

Various types of patriotic Buddhism emerged at different levels of acceptance of Buddhism. This study divided patriotic Buddhism into five types. The types are as follows : receptive, recognized as state religion, autocratic, preservation-intended, human-oriented.

Characteristics of patriotic Buddhism in Joseon manifested as 'preservation-intended' and 'human-oriented' Buddhism. Preservation-intended is to preserve it against anti-Buddhism, pro-Confucianism policies, and Human-oriented is to help and protect people from national crises.

During the Joseon Dynasty, Buddhist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for the very existence of Buddhism and for national defense to overcome national crises. The conduct of rituals for royal stability and establishment of temples guarding royal tombs seem to be an inevitable choice to preserve Buddhism, and forming monastic army during war times can be seen as patriotic activities to defend the state.

Patriotic Buddhism during the Joseon Dynasty manifested as provision of political advise, formation of monastic soldiers to protect people and the state, publication of scriptures to disseminate Buddhist teachings and enlighten people, and social work to help people in need.

In a modern, multi-faith society, patriotic Buddhism needs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common-good-promoting aspects of Buddhism, and help people ease their psychological agony.

**Key words** : patriotic Buddhism, types of patriotic Buddhism, Joseon Dynasty, suppression of Buddhism, Monk army